

제6회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 프리뷰

1. 실력의 저팬 퀄리티, 자수 · 레이스가 충실

텍스타일전 제 6 회 JC 프리뷰는 5 월 17 일 ~ 5 월 18 일 이틀간 都内 港區의 티피어 홀에서 개최된다. 회를 거듭하여 상담회로서의 평가를 높여 이번 출전 기업은 115 개사(지난회 보다 17 개사 증가)이다. 모두가 일본을 대표하는 텍스타일 메이커이다. 출전 기업의 개요라든가 주목되는 상품을 소개한다.

小野莫大小工業(東京都)은 이번에도 독자의 파슬링 프리 원단 ‘코즈모라마’(특허신청 중)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얇은 니트 원단은 서로 파스너 현상 때문에 봉제가 어렵다. ‘코즈모라마’는 그것을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잔털이 적고 클리어하고 눈에 띄게 가라 앉은 감이 있어 재봉에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주력 소재는 면이다. 단사를 사용한 싱글 저지를 주력으로 하여 왔으나 새롭게 SZ 저지도 개발하였다.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아르마니로부터 행거 스와치를 요구하는 등 최근에는 구주의 국제 브랜드에서도 주목되고 있다.

또 이번에는 帝人파이버와 공동 개발하여 빛에 의하여 나비의 날개와 같이 발색하는 ‘모포텍스’ 컷소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다. 혼용률은 50%로서 통상의 면 혼방 외에 면/코즈모라마 혼용, 폴리에스터 혼용 등이다. 번수는 80dtex 와 120dtex 로 편성 조직은 플레인이다. 이너로부터 아우터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용도 전개가 가능하다.

엠브로이더리, 레이스 메이커인 토립레이스(名古屋市)는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다. 주용도는 부속용 레이스로서 오리지널 레이스를 자사 리스크로 비축 판매하고 소로트 단납기의 니즈에 응하고 있다. 레이스의 인기 상승이라고 하는 순풍을 타고 기존의 대형 어패럴에 더하여 앞서의 전시회에서는 裏原宿계 어패럴 등 신규 고객도 많이 개척하였다.

이 회사는 해도 면(Sea island cotton) 100 수 쌍사 등 세번수를 사용한 섬세한 케미칼 레이스가 자랑이다. 이번에는 트렌드가 안티크한 클래식 레이스를 중심으로 제안한다. 스팅클이나 라메사를 사용하는 등, 인기 있는 광택감이 있는 것을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오래된 레이스 자료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 기획 제안력이

있다는 점도 인기의 요인이다.

旭編物(福井市)은 스트레치 니트 전문 메이커이다. 1952년 창업 당시에는 아우터용 니트를 생산하였으나 스판덱스가 개발된 직후인 1964년부터 스트레치 니트의 생산을 개시하였다. 전체의 절반은 자사 고유 사양 상품으로 생산한다. 전시회에서는 소프트, 경량, 강한 킥백 효과의 요망이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한 나일론사와 HS(하이 소프트) 타입의 스판덱스를 사용한 스트레치 니트를 2004년에 개발, 이너용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더욱이 흡습·속건 기능이 있는 차별화 나일론을 사용한 신상품도 개발, 2004년 말에 저팬 크리에이션(JC)에 출전하여 호평이었다. 자사 고유 사양 상품으로 스트레치 니트를 생산하고 있는 니트 업체는 없다.

샤르만工藝(群馬縣桐生市)는 엠브로이더리 레이스, 자수, 특수 가공 메이커이다. 독자적으로 개조한 특수 라셀기를 사용하여 원단에 자수하는 아메리칸 자수를 시발로 폭 넓은 자수 레이스를 생산한다. 독자적인 아메리칸 자수는 샤르만 레이스의 상표 등록을 하고 있다.

2004년 12월 JC에서는 솔이나 스톨 등의 제품도 전시,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하였다. 이번 프리뷰에서도 이와 같은 2차 제품을 출품하는 외에 새로운 수세가공 등 2차 가공을 실시한 상품도 제안한다.

2. 트렌드를 확보한 새로운 제안

데님 원단 전문 상사인 다크텍스타일(廣島縣)은 새로운 시리즈 ‘버드아이 데님’과 유화 염료 타입의 컬러 데님을 메인으로 내놓는다. 현재 잘 팔리는 상품인 핑크 데님에 이어지는 것으로 몰두를 강화한다.

지난 JC에서는 데님 원단에 소 가죽을 붙인 새로운 가공인 ‘레저 데님’이 방문객으로부터 높은 호평을 받았다. ‘箔 데님’도 고저스나 세레브계 진즈에 호평이다. 데님 진의 확대에 수반하여 일반 어패럴까지 고객선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특히 도쿄 시장에서 신규 고객 확대를 도모한다.

東民織物은 주력인 선염 직물을 기둥으로 전개한다. ‘06 S/F 시즌용을 중심으로 일부 기모 제품을 포함하여 ‘05 F/W의 현물전에 대응한다.

아메리칸 캐주얼 트렌드 중에서 기대되는 타탄 체크 등의 선염 체크는 면 섬유를 중심으로 한 복합 소재로서의 전개라든가 1마크 30 90 무늬라고 하는 풍부

한 배리에이션으로 정평이 있다. 대부분이 오리지널 현물 판매이기 때문에 선염 직물로도 대응할 수 있어 고객으로부터 호평이다. 텍스타일 컨버터나 어패럴, 자료 관계 등 폭 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거래선을 획득하고 있다.

베니토야마(大阪市)는 신개발한 오팔 원단이라든가 가죽 레이스, 면 소재의 제품을 주체로 출전한다. 그 중에서도 오팔 원단은 오팔 가공 후의 태나 광택이 종래에는 없는 새로운 표정을 연출한다. 일부에서 시험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트렌드의 광택감이 있어 반응이 좋다.

또, JC 프리뷰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을 전시한다. 이 회사가 텍스타일을 제공하는 디자이너에 의한 '05 F/W 레이디스 컬렉션의 일부이다. 작년 12 월의 JC 에서 제품을 전시할 때 지금까지 이상으로 상담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프리뷰 전에서도 활용한다. 출전 횟수를 거듭하면서 신규 고객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영, 캐리어계의 디자인 사무소와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의 JC 프리뷰에서는 특히 그러한 디자인 사무소와의 몰두를 강화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올림퍼스제사(愛知縣)는 계속 예로부터 계승되어 온 향수나 그리움을 생각하는 '古布'를 현대풍으로 재현한 프린트감을 메인으로 전개한다. 銘仙을 모던으로 어레인지한 시리즈에서는 새로운 무늬의 제안과 더불어 종래의 원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는 것으로부터 내추럴한 색조로 바꿨다.

JC 출전을 기회로 지금까지의 수예 업계로부터 어패럴이나 복식 잡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왔다. 전번 전시회인 10 월의 프리뷰, 12 월의 JC 이후, 남성이나 아동복 어패럴과의 거래도 시작하였다. 셔츠나 데님 팬츠 등에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예상 이상의 확대로 이번의 프리뷰에 거는 기대도 강하다.

3. 인기 상품의 진화판이 이어져

오퍼(大阪府)는 라오스 남부의 거리 사바나 케이트에서 현지에서 재배된 수방면(手紡綿)이나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면 100% 직물 'Shoku(사반의 천)'를 판매하고 있다.

2004 년 10 월, JC 프리뷰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12 월의 저팬 크리에이션(JC)과 더불어 양 전시회 합계 17 개사의 신규 고객을 개척하였다. 어패럴 외에 모자나 가방 메이커를 시발로 일본 옷의 띠 등 폭 넓은 분야에 판매하고 있다. 어패럴은 남성용 재킷이 많다.

이 소재는 수방이기 때문에 번수가 1 5수로 굵다. 그래서 이번 회에는 여름용으로 보다 얇은 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기계 방직한 20 수 면사를 경사로 사용한 것을 제안한다. 색 사용도 지금까지 보다도 밝게 마무리하여 상품의 폭을 넓히고 있다.

레이스 메이커인 落合레이스(東京都)는 원래 부속용 고급 레이스 메이커이었는데, 광폭 레이스 분야에도 참여한다. 12 월에 개최된 JC 에는 과거에 6 번 연속하여 출전하였다. 광폭 레이스 메이커로서도 인지도가 높아 광폭 레이스는 매상고 기준으로 전체의 20%까지 상승하고 있다.

이 회사의 광폭 레이스는 판매 타겟을 의도적으로 미들 레인지로 설정하여 무늬도 비용이 높게 되는 안티크한 것은 피하고 기하 무늬라든가 보더 무늬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레이스는 심플하고 호화스럽지는 않으나 시장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한편, 주력인 부속용 레이스는 빈티지 안티크 감각의 레이스가 충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리뷰 전에서는 광폭 레이스와 부속용 레이스의 양쪽을 출전한다.

스마일코튼(三重縣)은 면사의 꼬임을 풀어 솜과 같은 상태의 실로 만듦으로써 민감한 피부인 사람에게도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는 경량이고 소프트한 코튼 ‘스마일 코튼’을 생산하고 있다. 3 월에는 일본 아토피 협회로부터 추천품의 인정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는 일본 아토피 협회와 공동 개발한 토들러용이나 베이비용 이너를 출전한다. 봉목이나 네임을 밖으로 맨 디자인을 하고 있어 보다 피부에 우수한 이너를 실현하였다. 소매점을 시발로 OEM 납품을 희망하는 어패럴 메이커 등의 거래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매상고는 전체의 절반이 이너나 홈웨어 제품 등의 OEM 이다. 또, 작년의 JC 에서 호평이었던 ‘스마트 코튼’ 머플러도 무늬를 바꾸어 출품할 예정이다.

자카드 전문 공장인 山本絹織(石川縣)은 코튼이나 실크,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의 복합 소재를 사용한 텍스타일로 정평이 있다. 5 월의 프리뷰에는 실크/나일론 혼용이나 실크/마 혼용, 플리즈 가공할 수 있는 천연 섬유와 폴리에스터와의 복합 소재 등을 제안한다. 무늬가 적은 꽃이나 프랑스 등의 안티크한 무늬가 중심이다.

4. 예상 외의 거래선 개척도

후쿠에이商社(福井縣)는 주력인 화합섬의 광택, 박지 직물을 베이스로 랜덤 요루 조젯이나 극세 메쉬, 샴브레이 조젯을 중심으로 출전한다.

랜덤 요루 조젯은 라메사나 필름사를 넣어서 광택감을 갖게 하였다. 라메사를 도중에 끊으면서 스트라이프상으로 넣어 랜덤한 표정을 연출한다. 텍스타일을 엷선으로 사용하면 유희감이 높아진다. 샴브레이 조젯은 컬러 포멀용으로 제안하여, 이것은 광택감과 부드러운 드레이프성으로 고급품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극세 메쉬는 금년 F/W 용으로 움직임이 있는 능직을 진화시켰다. 날염 색상 무늬가 보다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JC 프리뷰는 이번에 세 번째 출전하게 된다. 영 캐리어를 중심으로 한 여성 어패럴에서 거래선을 착실하게 확대하였다. JC 출전 전에는 없었던 키드 어패럴 고객도 신규 개척하였다. 주니어를 중심으로 키드와 여성의 기획이 서로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더욱 거래선을 확대하고 싶다고 의욕을 나타내 보인다.

染色工房 이후우(滋賀縣)는 전통적인 염색 방법을 현대에 살리는 것을 테마로 핸드 날염이나 보카시 염색, 교염 등 기모노의 다양한 염색 기법을 양복이나 패션 잠화에 전개하고 있다. 금년은 첫 출전부터 다섯 번째이다. 이번 프리뷰에서는 지금까지의 실험적 거래를 완성품의 형태로 양복으로부터 스톨, 모자 등의 잡화에 이르기까지 전시, 소개한다. 기모노는 소품이기 때문에 복지의 광폭에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제품 염색의 형태로 옷을 만드는데 반영시키고 있다. 손으로 그리는 것과 형을 병용하여 실크 니트라든가 실크 드레스 등에 友禪의 회화적, 사실적 모양을 재현한다. 유명 백화점의 특선 매장 등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하여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얼룩 염색 등에 의하여 고품질의 캐주얼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辰巳織布(大阪府)는 미시나 미세스용으로 면을 중심으로 한 마 섬유라든가 장 섬유와의 복합 고밀도 직물을 제안한다. 이번에는 06 S/S 시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강연의 고밀도 직물 외에 박지 직물을 다수 모두 갖추고 있다.

단순한 면 박지만이 아니라 이 소재와의 복합물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형상 기억에 우수한 소재로서, 스테인레스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원사 단계에서 형상 기억 기능을 갖게 한 폴리에스터를 사용하여 독특한 표정을 연출한다. 이번 S/S 시즌의 본격적인 트렌드로서 부상한 마 소재에도 주력하여 간다. 복합이나

가공 등으로 어떻게 진화 시킬까 현재 여러 각도에서 모색하고 있다. 또 해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어 모포 텍스와의 교직품도 어필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프리뷰 출전을 거듭함에 따라 거래선도 넓어져 왔다.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감성 기술을 구사하면서 어패럴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완성된 볼륨으로 거래할 수 있는 가공 도매로의 확대를 도모한다.

5. 독자적인 기술로 한 단계 연마

舊新三洋의 스태프는 연초부터 모릴린(愛知縣)의 일원으로서 다시 출발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모릴린으로서 출전한다. 독자적인 울이나 리넨 직·편물을 사용한 제품 수세라든가 제품 염색을 더욱 레벨 업 하여 내 놓았다.

기계화가 진행되기 이전에는 수직하기도 하고 수세만 하는 것이었기에 원점으로 돌아가 그러한 맛을 재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제품 수세, 제품 염색의 큰 특징이다. 그 때문에 내추럴한 표정이나 부드러운 손 촉감에 더하여 축률이 낮다는 등 많은 장점을 갖는다. 이 회사의 니트 울은 텀블러 건조에도 불구하고 경·위사 모두 축율 2% 이내이다. 리넨 제품의 수세도 축율은 2% 이내이다.

이 때문에 유명 브랜드나 실렉트 샵 등 고정 고객이 많다. 도매는 일체 중개하지 않고 디자이너와 직접 만나서 의향을 듣는 물건 만들기를 기본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상품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三浦織物(福井縣)은 박지 직물 메이커로서 스트레치 직물을 자랑으로 한다. 자사 리스크로서 정번품은 염색 마무리 제품을, 준 정번은 생지를 비축 판매한다. 4개의 파리 컬렉션 참가 브랜드에 몇 차례 텍스타일을 납품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가공 원단은 시폰 112cm 폭과 147cm 폭을 30 색상씩 비축 판매하고 있다. 더욱 품번을 넓혀 네다섯 색상씩을 준비하여 한 벌분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번의 주력 상품은 스트레치 오건디나 스트레치 백사틴, 소프트 스트레치 서커, 투웨이 스트레치 태피터, 투웨이 스트레치 시폰 등이다. 이 회사 독자의 정번 상품을 확립하여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帝國纖維(東京都)는 프리뷰에서는 의류용 텍스타일을 제안한다. 12 월의 JC 는 OEM 의 수주 획득을 목표로 압축하고 있다. 이 회사는 1997 년에 아이리시 리넨 메이커인 하드만과 일본 시장에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는 구주의 일기 불순으로 고품질 리넨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帝國纖維는 타사보

다도 한 단계 안정된 품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면/마 혼용의 컴팩트 양을 생산하여 伊藤忠商社와 연휴하여 판매하고 있다. 2004년에는 10 수와 16 수, 20 수만이었으나 더욱이 30 수와 40 수도 개발 중이다. 또 2004년부터 구주산의 리넨을 중국에 가지고 와 지정 공장에서 생산을 개시하였다. 엄밀한 상품 관리 하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리넨사와 직물을 생산, 구주로부터 수입한 제품보다도 리즈너블한 가격을 실현하고 있다. 중국에서 연 생산량은 실이 30, 직물이 3 만 전후이다.

麻絲商會(滋賀縣)는 리넨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 섬유를 주축으로 다른 산지와 거래로 다양한 복합 소재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의 주력 상품은 카티온 염색이나 루포완 염색, 스트레치사, 箔 가공 등이다. 카티온 염색은 마를 톱 단계에서 카티온 처리한 솜을 혼방한 마 100%의 멜란지사이다. 소로트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루포완 염색은 리넨의 표면만을 염색하고 내부는 하얀 채로 남기는 염색 방법으로 마무리 가공에 의하여 수세 표백한 듯한 표정이라든가 점과 같은 얼룩이 있는 표정을 만든다. 📖